

# 불교계 여성사이트가 없다



여성 인터넷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여성 사이버 포교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면은 여성전문 인터넷 사이트 마이클럽닷컴(www.miclu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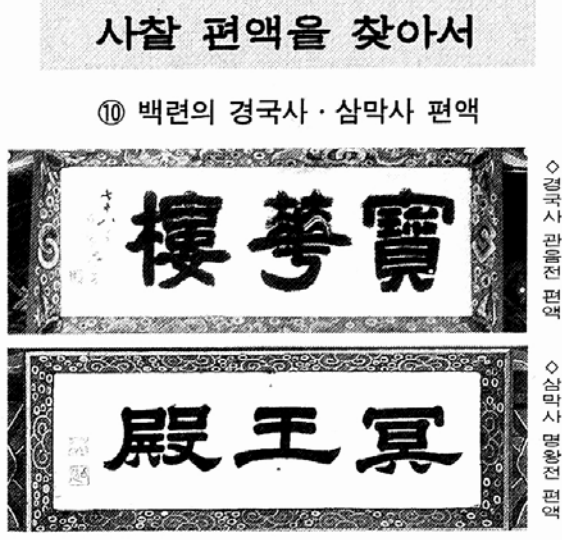
최근 여성들을 겨냥한 인터넷 사이트들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불교계에는 전문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여성불교에 대한 사이버 포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여성을 위해 개설된 일반 여성사이트는 '선영아 사랑해'란 이색적인 광고로 눈길을 끌었던 마이클럽닷컴(www.miclub.com)을 비롯해 우먼플러스(www.womenplus.com), 아이지아(www.izia.com), 토크투미(www.talk2me.co.kr) 등 40여개 정도에 이른다.

## 네티즌 늘어나도 사이버포교 외면 여성 홈페이지 40·타종교 7곳 '대조'

이들 사이트들은 크게 여성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여성 종합 포털사이트와 여성들의 특정한 관심에 초점을 맞춘 전문 사이트들로 나뉜다. 마이클럽닷컴이나 우먼플러스가 여성 종합 포털사이트라면 베베타운(www.bebetown.com)은 임신 육아에 집중하는 전문 사이트며 아줌마(www.azooma.com)는 명칭 그대로 아줌마들을 위한 전문 사이트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선교 목적의 여성 종교사이트 현황을 살펴 보면 개신교 4개, 천주교도 3개 정도가 개설돼 있다. 이렇게 여성전문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는 주 원인으로는 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부터 주부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부 인터넷교육'을 통해 여성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광고단체연합회가 최근 조사 발표한 '2000년 상반기 인터넷 사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 사용자중 여성의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의 29.3%에서 17.2% 증가한 46.5%로 나타났다. 이런 수치는 평범한 여성들도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알기 위해서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계사 신도인 심숙자보살(45. 강남구 대치동)은 "지난 4월 강남구청에서 실시한 주부인터넷 교실에 참여해 현재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줄 안다"며 "시간 날때면 불교인터넷TV의 사이버법당 및 교리강좌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신도의 대부분이 여성인 불교계에서 여성불교 사이트 개설을 비롯한 사이버포교

는 시급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불교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교연합회 등 7개의 여성단체에는 그 흔한 홈페이지 하나 없는 실정이라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 보면 첨단 포교의 외면으로 교세 확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울려 나오고 있다. 컴퓨터의 클리닉 하나로 안방에서도 여성불자들이 불교에 대한 각종 정보를 빨리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불교 여성사이트의 개설은 앞당겨져야 할 과제다. 10월 창립을 앞두고 있는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간사는 "여성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타종교에 비해 여성불교의 사이버 포교가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불교여성개발원이 창립되면 빠른 시일내에 홈페이지 제작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도 여성불자들이 불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원 기자 (jkkim@buddhania.com)



백련 지운영(白蓮 池雲英/1852~1935)은 우리 나라에서 종두법을 처음 시행한 지식영(池錫永)의 형으로 김정희의 제자 여항운(姜煥雲)의 문하에서 시문 등을 배웠다. 또 유·불·선에 두루 능통했으며, 시·서·화에 뛰어난 삼절(三絶)이었다. 백련은 1884년 통리군국사무아문의 주사가 됐고, 1886년에는 사대당(事大黨) 정부의 밀령을 받고 김육균, 박영효 등을 암살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갔다가 일본 경찰에게 잡혀 암살된 후 명병에서 서울 경국사 관음전에 걸려 있다. <보화루> 편역에는 '칠십팔운 백련 지운영(七十八翁 白蓮 池雲英)'이라는 관지와 '백련(白蓮)'이라는 주문의 방인이 있다. 이 편역은 백련이 79세 되던 1929년에 쓴 것으로 당시 주지로 있던 보경(寶慶)스님이 절을 중수하면서 그의 글씨를 받아 건 것으로 보인다. 편역의 글씨는 한예(漢隸)를 아문(雅潤)한 필치로 써낸 것으로 노경에 이른 선비의 청아(淸雅)한 정신이 엿보인다.

## 보화루 노년 선비의 청아한 정신 담겨 명왕전 삼막사 머물며 쓴 예서체 백미

유배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는 안양 삼막사(명왕전) 편역에 1895년 유배에서 풀려나 재기를 꿈꾸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은둔하며 시와 그림에 몰두하였다. 백련은 불교에도 상당한 관심과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노년에는 동생 지식영과 함께 관악산 연주암과 삼막사에서 오랜 동안 기거하기도 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안양 삼막사에서 잠시 승려 생활을 했다고도 한다. 그는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안양 삼막사(명왕전), 서울 경국사 관음전(보화루), 서울 봉은사(영산전) 편역 등을 남겼다.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 건강백과

### 비만과 변비

노후의 계절인 여름이 되면 갖가지 피부질환과 대책없이 튀어나온 아랫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시원한 민소매 옷이나 수영복을 마음껏 입을 수 없는 여성들은 여름이 더욱 자중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미, 주근깨로 인한 거친 피부와 뱃살의 최대 주범은 변비다. 특히 변비로 인해 몸에 쌓인 노폐물에서 나오는 요산이 독성 일산화탄소 등 맹독성 가스는 장기를 중독시켜 기능을 떨어뜨린다. 변비는 또한 복통, 소화불량, 대장게실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장암이나 대장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변비는 비만을, 비만은 변비를 일으킨다. 변비로 대장 움직임이 둔해져 지방 분해가 안 되고 가스가 차면 아랫배, 일명 똥배가 나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변비는 △배변 횟수가 1주일에 2번 이하 △배변량이 35g 이하 △배변 뒤에도 잔변감이 있다 △변이 가늘거나 딱딱하다 △배변 때 과도한 힘을 줘야 한다 등의 증상이 있는데 2가지 이상이 3개월 간 지속될 때를 말한다.

- 비만의 근원이 되는 변비 퇴치법을 알아보자.
- 1)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 2) 배변은 아침식사 뒤에 한다.
  - 3) 물을 충분히 마신다.
  - 4) 야채나 과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다.
  - 5) 산책이나 조깅 등 유산소 운동을 땀이 날 정도로 자주 하는 것이 좋다.
  - 6) 배변 뒤에는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면 항문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 7) 스트레스는 장을 해친다.
  - 8) 갑작스런 배변 습관 변화나 가는 변, 피나 점액이 묻은 변이 나오면 대장내시경 검사가 꼭 필요하다.

## "올동·동요 부르기 너무 재밌어요"

### 소원적은 풍등 띄우기도 인기 25회 여름불교학교 지도자연수

"자, 이제는 스님이 뒤집 차례예요. 여러분 환천 응원 부탁드립니다." 17일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 '제25회 여름불교학교 지도자연수회' 현장. 불교 레크리에이션포교회 회장 정호성님을 비롯한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 2백여명이 편을 갈라 훌라후프 게임을 하고 있다.



◇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17일부터 1박2일간 강남 봉은사에서 '제25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연수회를 열었다. 올동 강의시간에는 한동작이라도 더 몸에 익히려는 듯 참가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했다. 이외에도 종이놀이법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급법, 정호성님의 불교기초교리 강의 등이 펼쳐졌다. 김주원 기자

이번 행사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열기구처럼 만든 풍등에 참가자 2백여명의 발원을 적어 하늘로 띄워 보낸 순서다. 풍등에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개인소망에서부터 더욱더 새싹불자 포교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원들이 쏟아져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어 열린 작곡가 정유탁씨의 창작 찬불동요와

## 청소년 단신

한문 학당'을 개설한다. 새싹불자들의 정신수양을 위해 참선교육도 병행될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사자소학>을 교재로 법인스님(대둔사 수련원장)과 금강스님(미항사 주지)이 강의한다. 또 다도를 비롯한 생활예절 교육과 문화체험도 곁들여진다. (0634)533-3521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 부산 양정청소년회관은 7월16일 인터넷 상에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제2회 인터넷 정보 검색 대회'를 연다. 또 양정청소년회관의 마스코트가 될 'power1318' 지킴

이'의 이름도 7월16일까지 공모한다. 1등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수여되는 이번 행사의 지킴이 캐릭터는 www.power1318.com으로 들어가면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경주 청소년 문화축제 파라미터 청소년협회 경주지회는 24일 오후 2시 불국사 불교사회교육원에서 '제4회 경주 청소년 문화축제'를 열었다. 유치부를 비롯해 초·중·고 및 대학생까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D.D.R 경연대회와 테크노댄스 대회, 즉석 노래방, 퀴즈대잔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선재청소년지도자 연수 선재연구모임은 7월1일부터 2일까지 남양주 봉인사에서 '제4차 선재청소년 지도자 연수회'를 연다. 전래놀이, 자연놀이 등 7개 분과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위빠사나 △금강산순무도 △한불가리지 △불교습의 △대동놀이 △불교레크리에이션 △심성개발 등을 주제로 교육한다. (02)433-1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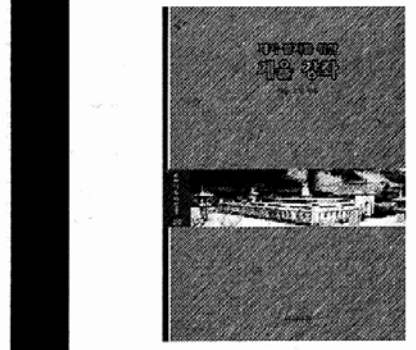
미항사 한문학당 열려 해남 미항사는 7월22일부터 29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미항사 세심당에서 '어린이

## 청소년 눈높이 맞춘 큰스님 선문답

충북파라미터 '직지심체' 퍼내 충북 파라미터지회는 과거 부처님과 인도의 역대조사 스님을 비롯해 중국 대덕스님들의 깨달음과 선문답을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불조직지심체요람>을 최근 발간했다. 상하편으로 구분돼 있는 이 책에는 부처님의 과거 칠불에 대한 이야기와 인도 28조사 및 중국의 6조사가 소개돼 있다. 또 중국 5가기엔 편에서는 임제종, 조동종 등 각 종파 스님들의 선문답이 40편 실려있다.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생활불교 202 **여사어문** 여사어문은 '좋은 바. 먼 저의 어극남도 없이 간언했다'는 정신으로 시대와 빛이 잘 깎음을 만들었습니다. 주소: 충주구 권석동 110-3 전화: (02)747-0695 팩스: (02)747-0696

# '계율'의 참된 의미와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지키며,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혜능 스님 엮음 B6 변형 330쪽 / 값 6,500원

일반적으로 계율이라고 하면 '계'보다도 '율'의 의미로 이해하고, 우리의 일상과는 요원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율보다 계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계'는 외부에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정신'이다. '율'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 것이다. 불교 교단뿐만 아니라 어떤 교단이라도 반드시 규칙이 있기 마련인데, 이 교단 규칙이 바로 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의 입장에서 율을 지키려고 하는 데 '지계'의 진정한 의미가 생겨난다. 불교가 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계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불자로서의 자각은 '믿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해도 좋지만, 불자로서의 행동은 '계'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 삼귀의계(三歸依戒) - 사보계정경, 염삼보경, 일체사경
- 오계(五戒) - 우배계
- 팔관계(八關齋戒) - 지계경, 불설우바이타사기경, 불설팔관계경
- 십선계(十善戒) - 십선경, 순타경, 사경, 가람경, 가미니경
- 재가 불자의 윤리 - 자비, 담미계경, 더없는 행복, 피할, 천한 사람, 대부호, 미났뎀다, 효자, 사랑스런 이, 교계신갈라경, 옥야경
- 대승불교의 계율 - 범망경 보살계, 재가보살계본, 대방광불화엄경 정행품, 대방광불화엄경 십지품, 불유교경
-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수행의 지침 - 보살의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 보살의 보석 열두, '마음의 훈련'을 위한 열여덟 가지 공약, 더불어 살기 위한 열네 가지 계율, 서른여덟 가지 행복의 길, 불심수행장, 대승육정참회

#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